



2015년 4월 17일 제 66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 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 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美여객철도] **美연방의회, 「여객철도 개혁 및 투자법안」 논의 진행** : 이번 법안은 암트랙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비용 절감 △연방정부 보조금 외에 민간자본 유치 △유일한 흑자노선인 북동선의 분리화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를 통해 과감한 개혁조치 제안

* 북동선 (North East Corridor)은 워싱턴 DC와 보스턴을 잇고 매일 200여 편의 열차가 운행되는 황금노선

[자동차 판매] **2015년 3월 미국 자동차 판매 전월 대비 22.81% 증가** : 경기회복, 소비심리 호조, 저유가 등으로 판매 증가세 지속. 도요타는 포드에게 2위 자리를 내준 반면, 현대기아차는 혼다를 제치고 6위로 상승

* 주요 변화 추세: SUV(전년동월비 6.4%↑), 픽업(전년동월비 3.8%↑), 소형(전년동월비 0.9%↓), 중형(전년동월비 6.3%↓), 고급 승용 (전년동월비 4.7%↑)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미 여객철도(암트랙) 개혁법안 관련 동향

미 연방의회는 미국 여객철도공사인 암트랙(AMTRAK)의 경영혁신과 사업 구조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철도 개혁 및 투자법안(Passenger Rail Reform And Investment Act 2015)"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공공기관의 예산, 사업내용, 경영방침 등을 법안형태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동법안은 2008년 제정된 "여객철도 투자 및 개선법안(Passenger Rail Investment And Improvement Act)"를 대체하여 암트랙의 업무를 재승인(Reauthorisation)하는 법안임

1 법안의 주요 내용

- 암트랙을 기업처럼 경영하도록 회계의 투명성 확보, 비용 절감 등 추진
 - 암트랙은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여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왔으나 동 법안에서는 이런 관행을 지양하고 실제 재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할 것을 지시(기존 예산대비 40% 수준 감축)
 - 최근 수년간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식음료 사업부문에 대해 제품공급 및 조달체계 개혁,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암트랙에 요구
 - 암트랙 회계를 핵심사업 분야별로 세분하여 신설함으로써 흑자 노선·사업과 적자 노선·사업을 명백히 구분하여 보다 투명하게 경영
- 연방정부 보조금 이외에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하도록 암트랙에 지시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암트랙이 소유한 주요 역사를 재개발하거나 철도부지(Right-of-Way)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지시



《암트랙(AMTRAK)의 고속열차 Acela Express》

- 암트랙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북동선(North East Corridor 또는 NEC)을 타 노선과 분리하여 동 노선에 대한 시설투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잇는 북동선은 매일 200여편의 열차가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 등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황금노선으로 매년 흑자(13년, 4억달러)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동 노선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타 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어 북동선에 대한 시설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암트랙의 흑자노선인 북동선(North East Corridor) 노선도》

- 이번 법안에서는 북동선에 대한 회계를 타 노선과 분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전액 동 노선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수익을 더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였음

- 북동선 이외의 나머지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암트랙의 자체평가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노선운영권을 부여하여 암트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수행 도모
 -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한을 사전에 지정하여 과도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계기관이 동시에 영향평가에 참여하여 검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

2 미 의회의 법안 논의 동향

- 이번 여객철도개혁법안은 당초 하원 Bill Shuster의원(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이 2014.9.17일 발의하였으나 작년 중간선거 및 113대 미연방의회 폐회 등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14대 의회 개회와 함께 동일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어 적극 논의중에 있음
 - 특히, 동법안의 발의자인 Shuster 의원이 114대 의회 하원 교통·인프라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난 3.4일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공화, 민주 양당 모두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 암트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법안통과 전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3 관찰 및 평가

- 이번 법안은 암트랙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암트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 및 암트랙의 경영개선 노력 등에 대해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존역사,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과 흑자노선·적자노선을 분리 경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향후 암트랙 측의 실행계획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철도운영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끝/

※ 내용 관련 문의: 이상현 국토관 (202-587-6146, simplewate@naver.com)

2015년 3월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 '15.3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1,545,710대로 전년 동월(1,537,282대) 대비 0.5% 증가, 전월(1,258,570대) 대비 22.81% 증가 (Automotive news)
 - *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 ('14.9)9.4→(10)6.1→(11)4.6→(12)10.9→('15.1)13.7→(2)5.4→(3)0.5
- 경기회복, 소비심리 호조로 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유가 등의 추가효과에 힘입어 소형상용 판매 우위도 지속
- 현대·기아차의 전월대비 판매량, 전년대비 판매량 모두 증가, 판매점유 순위는 6위로 상승 (전년동월 대비 판매신장율 1위)

1 전체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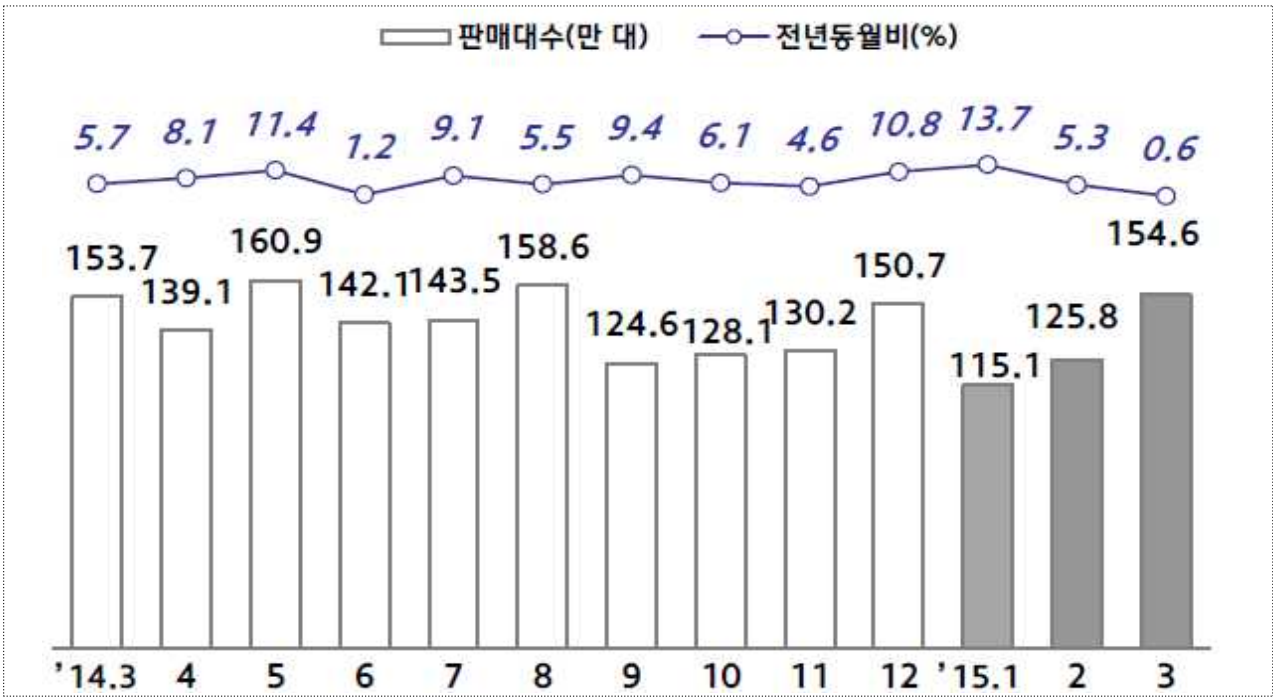
- (판매량) 2015년 3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54.6만대 (자동차산업 연구소)
 - * 수요 측면: 영업일수 감소(-1일) 및 전년도 판매량에 따른 불리한 기저효과 (2014년 1,2월 흑한과 폭설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2015년 3월에 판매가 크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 지속과 소비심리 호조로 증가 지속
 - * 공급 측면: 3월 대당 평균 실거래가는 3만 2,200달러로 전년비 2.1% 증가
 - 연간환산판매대수(SAAR)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700만 대를 상회, 금융위기 이후 3번째로 높은 1,717만대 기록
 - * (SAAR,만대):('14.9)1,643→(10)1,642→(11)1,718→(12)1,688→('15.1)1,665→(2)1,624→(3)1,717
- (점유율) 포드가 도요타를 제치고 2위로 한 단계 상승(전월대비 0.91%p 증가, 전년대비 0.64%p 하락)했으며, 현대·기아차는 혼다를 제치고 6위로 상승(점유율은 8.66% (전월대비 1.0%p 증가, 전년대비 0.73%p 증가))

<업체별 점유율 및 순위 변동>

점유순위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닛산	현대·기아	혼다	폭스바겐	BMW	Daimler AG
'15.1월	1	3	2	4	5	7	6	8	9	10
'15.02월 점유율	1 (16.2%)	2 (15.2%)	3 (14.6%)	4 (12.8%)	5 (9.4%)	6 (8.7%)	7 (8.2%)	8 (3.3%)	9 (2.6%)	10 (2.1%)
순위 변동	-	↑(+1)	↓(-1)	-	-	↑(+1)	↓(-1)	-	-	-

- (차급별 판매구성) 소형상용 우위 유지(전체 판매에서의 비중은 55.0%)
 - (소형상용) SUV는 중소형 차급 위주로 증가 지속, 픽업에서는 중형 픽업이 신차 효과로 크게 증가
 - * SUV(전년동월비 6.4% ↑): 경기회복과 주요 모델 신차 효과로 컴팩트(7.0% ↑), 미드(11.1% ↑), 고급(8.3% ↑) 차급 크게 증가
 - * 픽업(전년동월비 3.8% ↑): 포드 F시리즈 재고 부족의 여파로 대형픽업 판매가 감소로 전환(0.6% ↓)한 반면, 중형픽업(54.9% ↑)은 GM 모델의 신차효과로 판매 증가
 - (승용) 신차와 판촉 확대 모델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형상용 선호가 유지되면서 소형상용 대비 상대적 열위는 지속
 - * 소형(전년동월비 0.9% ↓): 저유가와 SUV 호조에 따른 판매 정체 지속. 다만 프로모션을 강화한 현대 엘란트라(33.8% ↑), 도요타 코롤라(19.7% ↑)는 호조
 - * 중형(전년동월비 6.3% ↓): 신차가 출시된 크라이슬러 200(154.8% ↑)은 호조. 혼다 어코드(23.4% ↓)를 비롯한 상위 10개 모델은 대부분 부진
 - * 고급 승용(전년동월비 4.7% ↑): 어큐라 TLX와 아우디 A3 신차효과 지속으로 니어(7.6% ↑)와 엔트리(51.3% ↑) 럭셔리 차급의 판매가 증가

< 월별 판매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전미딜러협회 >



1 업체별 판매현황

□ (미국) 전년대비 판매량은 승용판매 부진(GM/포드)과 F 시리즈 재고 부족(포드)으로 GM, 포드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며, 전월대비 판매는 GM과 포드 모두 증가하면서 GM은 1위 유지, 포드는 도요타를 제치고 판매량 2위를 탈환

* 2014년 1~2월은 혹한과 폭설로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회사들의 2014년 3월 판매량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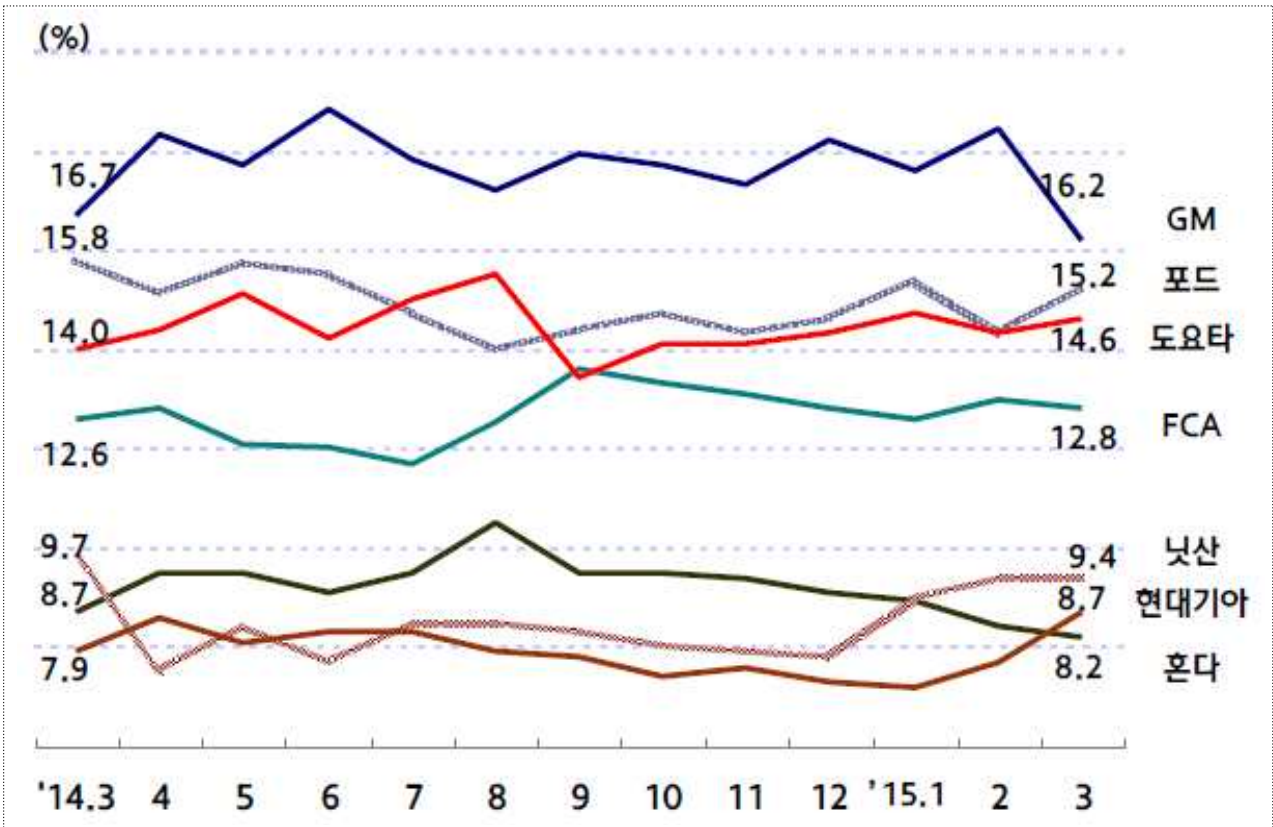
○ 다만, GM 및 포드 모두 승용판매는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사의 향후 대책이 귀추

* GM(249,875대 전년비 2.4%↓): 소형상용(10.4%↑) 대비 승용(20.8%↓) 부진 심화. 캐딜락 (6.8%↓), 쉐보레(3.2%↓) 감소

* 포드(234,786대 전년비 3.5%↓): 승용 감소에 소형상용 정체가 더해져 부진 확대. F 시리즈(4.6%↓), 포커스(14.5%↓), 퓨전(11.9%↓) 등 부진 지속

- 이와 별개로, 크라이슬러(198,434대 전년비 1.7% ↑)는 체로키, 랭글러, 패트리엇 등 지프(71,584대 전년비 23.5% ↑) 전모델 호조와 200 신차 효과로 60개월 연속 증가
 - * (일본) 도요타가 판촉 강화와 렉서스 호조로 증가한 반면, 혼다는 주요 모델 판매 부진으로 감소. 양사 모두 포드와 현대·기아의 판매 호조를 뒤집지 못하고 판매 순위가 한 단계씩 하락
- 도요타(225,959대, 전년비 4.9% ↑): 주력인 코롤라와 CR-V에 0% 할부, 인센티브 확대, 리스료 인하 등 판촉 집중. 렉서스(8.6% ↑)도 NX와 RX의 신차 효과 지속
- 혼다(126,293대, 전년비 5.3% ↓): 주력인 어코드(23.4% ↓), CR-V(5.8% ↓), 시빅(3.6% ↓)이 모두 감소하면서 월 판매량 기준 7위로 하락
- (현대·기아차) 신차효과, 판매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전년비(9.9% ↑), 전월대비(38.6% ↑) 모두 판매가 증가했으며, 판매 점유순위도 한 단계 상승
 - * 3월 점유율 (8.7%) : '15.2월 대비 0.99%p 상승, 전년 동월(7.92%대비) 0.73%p 상승
 - * 7위인 혼다(126,293대)와는 점유율 5.31%p 차이
- (현대차) 75,019대로 전년비 12.0% 상승, 전월(52,505대)비 42.9% 상승
 - * 엘란트라(28,794대, 전년비 33.8% ↑), 엑센트(7,494대, 전년비 28.3% ↑), 제네시스(3,064대, 전년비 41.2% ↑)는 상승세
 - * 소나타(18,340대)는 전년비 4.7% ↓ 하락
- (기아차) 58,771대로 전년비 7.3% 상승, 전월(44,030대)비 33.5% 상승
 - * 스포티지(5,184대, 전년비 45.2% ↑), 소렌토(10,842대, 전년비 25.0% ↑)는 상승세
 - * 소울(12,731대)는 전년비 9.0% ↓ 하락

< 업체별 점유율 추이 : 전미딜러협회 >



< 2015.3월 주요 업체별 판매량 (대, %) >

회 사	'15.3월		'15.2월		'14.3월		판매량 증가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전월	전년동월
① GM	249,875	16.17%	231,378	18.38%	256,047	16.66%	7.99%	△2.41%
② Ford	234,786	15.19%	179,673	14.28%	243,417	15.83%	30.67%	△3.55%
③ Toyota	225,959	14.62%	180,467	14.34%	215,348	14.01%	25.21%	4.93%
④ Chrysler	198,434	12.84%	164,244	13.05%	195,053	12.69%	20.82%	1.73%
⑤ Nissan	145,085	9.39%	118,436	9.41%	149,136	9.70%	22.50%	△2.72%
⑥ 현대기아	133,790	8.66%	96,535	7.67%	121,782	7.92%	38.59%	9.86%
⑦ Honda	126,293	8.17%	105,466	8.38%	133,318	8.67%	19.75%	△5.27%
⑧ VW	51,701	3.34%	40,626	3.23%	55,112	3.59%	27.26%	△6.19%
⑨ BMW	40,234	2.60%	28,998	2.30%	35,854	2.33%	38.75%	12.22%
⑩ Daimler AG	32,883	2.13%	25,749	2.05%	30,091	1.96%	27.71%	9.28%

미국 등 일일경제지표(15.4.17 금)

DOW(0.04% 하락) KOSPI(0.17% 상승) 달러 환율(0.48% 하락)

[주가]

재경관심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5	4.16	4.1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6,576.66	17,983.07	17,416.85	18,214.42	17,976.31	18,036.70	18,112.61	18,105.77	-0.04%	0.72%	0.68%
Nasdaq	4,176.59	4,777.44	4,683.41	4,987.89	4,947.44	4,977.29	5,011.02	5,007.79	-0.06%	1.22%	4.82%
S&P 500	1,848.36	2,080.35	2,021.25	2,110.74	2,086.24	2,095.84	2,106.63	2,104.99	-0.08%	0.90%	1.18%
KOSPI (한)	2,011.34	1,915.59	1,949.26	1,985.80	2,041.03	2,119.96	2,139.90	2,143.50	0.17%	5.02%	11.90%
NIKKEI (일)	16,291.31	17,450.77	17,674.39	18,797.94	19,206.99	19,869.76	19,885.77	19,652.88	-1.17%	2.32%	12.62%
FTSE100 (영)	6,749.09	6,547.00	6,810.60	6,949.73	6,891.43	7,075.26	7,096.78	7,060.45	-0.51%	2.45%	7.84%
DAX (독)	9,552.16	9,805.55	10,737.87	11,327.19	12,086.01	12,227.60	12,231.34	11,998.86	-1.90%	-0.72%	22.37%

[금리]

(단위: %)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5	4.16	4.1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7	0.03	0.03	0.03	0.04	0.02	0.02	0.02	0.00	-0.02	-0.01
T/NOTE (3년)	0.78	1.1	0.77	1.01	0.93	0.85	0.85	0.81	-0.04	-0.12	-0.29
T/NOTE (10년)	2.99	2.20	1.77	2.03	1.96	1.90	1.91	1.90	-0.01	-0.06	-0.30
T/NOTE (30년)	3.90	2.76	2.33	2.63	2.55	2.54	2.55	2.56	0.01	0.01	-0.20
LIBOR (Dollar, 3월)	0.25	0.26	0.25	0.26	0.28	0.28	0.27	0.28	0.00	0.00	0.02

[환율]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5	4.16	4.1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55.40	1,090.95	1,093.50	1,098.40	1,109.50	1,096.80	1,088.90	1,083.70	-0.48%	-2.33%	-0.66%
Y / US\$	105.30	119.55	117.80	119.17	120.08	119.63	119.35	118.99	-0.30%	-0.91%	-0.47%
US\$ / EUR	1.3736	1.2128	1.1338	1.1214	1.0780	1.0632	1.0678	1.0765	0.81%	-0.14%	-11.24%
CNY / US\$	6.0628	6.2184	6.2507	6.2696	6.2026	6.2052	6.1979	6.1935	-0.07%	-0.15%	-0.40%

[유가]

	'13말	'14말	15.1말	2말	3말	4.15	4.16	4.17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42	54.12	44.53	48.17	48.68	53.29	56.39	56.71	0.57%	16.50%	4.79%
Dubai (\$/배럴)	107.88	53.62	44.63	58.42	53.95	56.32	56.82	58.66	3.24%	8.73%	9.40%

* 최종종가 기준 작성